



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 
우리도 사랑하자.



포콜라레  
천주교마리아사범회

“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.”  
(마태 18, 4)



By Oksar © PAFOM

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지 알고 싶어해요.



By Oksar © PAFOM

예수님께서서는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앉으라고 하세요.



By Oksar © PAFOM

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.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예요.



By Oksar © PAFOM

콜롬비아에 사는 사무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 있어요. 그런데 컴퓨터 한 대로 가족들이 함께 써야 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.



By Oksar © PAFOM

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아빠가 요리도 하고, 청소도 하시며,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어요.



By Oksar © PAFOM

사무엘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,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도 했어요.